

# “세상 풍경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선율 탄생하죠”

## 피아노 병창 공연 앞둔 발달장애 뮤지션 최준

죽음에 대한 감회를 피아노곡 '백중'으로 표현하는 최준 군(25)의 손길에는 소멸의 쓸쓸함이 그대로 담겨 나왔다. 최 군은 7살 지능의 발달장애에 뮤지션이다. 또래의 아이처럼 대화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일기 쓰듯 오선지 위에 그려내 피아노로 표현하고 판소리로 세상과 소통한다. 절대음감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최 군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절대음감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발달장애 뮤지션 최준 군은 현재 8번째 연주회로 피아노병창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백중’·홍보가 등 실린 앨범 발매**  
**11월 5일 오후 8시 국립극장**  
**내년 불교음반 제작도 계획 중**

죽음에 대한 감회를 피아노곡 '백중'으로 표현하는 최준 군(25)의 손길에는 소멸의 쓸쓸함이 그대로 담겨 나왔다. 최 군은 7살 지능의 발달장애에 뮤지션이다. 또래의 아이처럼 대화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일기 쓰듯 오선지 위에 그려내 피아노로 표현하고 판소리로 세상과 소통한다. 절대음감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최 군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10월 21일 삼정동에 위치한 최준 군의 연습실을 찾았다. 연습실 아래는 어머니 모현선 씨의 옷매장치가 있었고 2층 디자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최정돈 씨의 사무실 한 칸에 최 군의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한마음선원을 다녔던 최 군은 백중날 절에 다녀온 소감을 음악으로 옮겼다. 누구를 생각하며 썼냐는 질문에 “대형 스님!”이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생사의 의미를 어렵듯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준이가 죽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재작년 대형 스님의 입적 이후예요. 스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죠. 또 지난해에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다복이가 죽었고 올해 2월에는 매일 준이를 업고 특수학교를 다니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임을 알게 된 거 같아요.”

최근 피아노병창 새 앨범을 발매한 최준 군은 11월 5일 오후 8시 국립극장 달오름에서 '소리, 피아노를 만나다'는 주제로 연주회를 갖는다. 8회째를 맞는 이번 연주회에서 그는 '백중'은 물론 판소리 홍보가 등 10여곡을 판소리 병창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최준은 피아노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

있고 매일 저녁 <한마음 요전>을 들려다 볼 만큼 신심도 깊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장애편지를 받고 점점과 교회 등을 전전하던 최 군의 부모는 한마음선원 대형 스님 친견 이후 불교에 귀의했고 최 군도 자연스럽게 불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절에 다녀온 느낌을 오선지에 그려 프린트를 해 놓으면 아버지 최정돈 씨가 곱게 첩을 해 놓은 것이 벌써 두 권 분량에 이른다. 그간의 곡들을 선별해 내년 즈음에는 불교 음반을 낼 계획이다. 올해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작곡을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날 즈음 최 군은 홍보가 중화초장을 피아노병창으로 들려주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주변의 아기자기한 풍경도 최 군의 오감 속으로 들어오면 모두 음악이 되어 춤을 춘다. 그에게 음악은 또다른 언어이고 세상과 연결되는 열쇠이며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비추주는 하나의 거울인 것이다. 그래서 최준은 시바세계 세상의 수많은 풍경들을 음악으로 담아내며 세상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02)722-0277

정혜숙 기자 bwsh@nynul.com



최준 군이 불자 뮤지션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머니 모현선·아버지 최정돈 씨의 뒷바라지가 큰 힘이 되었다.



11월 5일 피아노 병창 공연 포스터

# 도인의 큰 은혜 산처럼 무겁네

운자의 대물림, 시의 멋과 맛

김장협은 영통사에서 시를 읊으며 채수와 박은을 떠올렸는데, 박은 역시 영통사에서 시를 지으며 자연에 은혜 도를 닦은 고절한 은자(隱者)의 삶을 그렸다. 박은의 문집 <취음현유곡>은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이행(李荇 1478~1534)이 편찬했다.

이행은 2편의 영통사 관련 시를 남겼다. 하나는 7년 율시이고 하나는 5년 고시인데 그 길이가 50행이나 된다. 이행의 문집 <용재집(容齋集)> 제4권 '천마록(天磨錄)'에 수록된 7년 율시를 보자.

우승미우문종림(偶乘微雨問叢林)  
 동부청한고목음(洞府淸寒古木陰)  
 약색담농조모태(岳色淡濃朝暮態)  
 계성서질단장음(溪聲徐疾短長吟)  
 백년천석혼여좌(百年泉石渾如昨)  
 일일풍류강우금(一日風流更有今)  
 주잔다표구불악(酒盞茶飄俱不惡)  
 각수잔경박사침(却愁殘景迫西沈)

**우연히 가랑비 속에 총름을 물으니  
 맑고 서늘한 골짜기 고목이 우거졌네.  
 물고 길은 산의 빛깔은 아침저녁 모습  
 깊고 빠른 시냇물 소린  
 깊고 짧은 시냇가.  
 백 년 전의 천석이 도무지 어찌만 같은데  
 하루 즐기는 풍류 다시 오늘이 있이라.  
 술잔이고 차잔이고 다 나쁘지 않지만  
 석양이 서쪽에 잠잠히 외려 걱정이로세.**

시인은 영통사라는 공간을 완상하며 참으로 담담하고 맑은 시상을 풀어 놓고 있다. 산 빛과 시냇물소리의 대구와 백 년 전의 자연과 하루의 풍류를 대비하는 솜씨도 대단하지 않은가? 거기에 술잔과 차잔을 가리지 않는 호방함 속에 지는 해를 아쉬워하는 정감이 곱기만 하다.

“영통사 앞의 물줄기는 만고에 우레 비처럼 굉음 울리지”로 시작하는 50행의 장시에서도 이행은 맑은 경물과 정갈한 시상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선비의 품모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 시의 제목은 ‘영통사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한 중열의 시에 차운하다’이다. 중열은 앞에서 이야기 한 박은의 자(字)다. 그러니까 박은은 영통사에서 앞 사람의 시를 차운하였는데, 그 시를 다시 친구인 이행이 차운하여 시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운자를 대물림 해 가면서 지어진 시를 읽는 것도 흥미롭다.

시로 보답한 스님들의 은혜  
 영통사는 고려불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찰이었다. 때문에 고려 후기 선비들과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㉔ 영통사 ㉔



영통사의 경선원에는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사진은 2012년 11월 15일 천태종 스님과 조선불교도연맹 스님들이 합동으로 대각국사 911주기 대제사를 올리는 모습.

영통사 스님들의 교류도 막역했다. 그러한 교류의 맛과 정을 엿볼 수 있는 시로는 조선 태종과 사돈 지간인 조준(趙浚 1346~1405)의 작품이 있다. 그의 문집 <송당집> 제1권에 실린 7년 절구 두 수는 ‘영통사 의침법사가 부채와 시를 선물로 주어 시운을 빌려 사래하다’는 제목 아래 지어졌다.

오송강수양청유(吳松江水兩淸幽)  
 유월청풍가매구(六月淸風可買求)  
 만사홍진다열비(萬事紅塵多熱惱)  
 도인가혜중산구(道人嘉惠重山丘)

오송강 물처럼 맑고도 그윽하니  
 유월 맑은 바람을 사는 것도 좋겠네.  
 세상 풍진은 열난만 많은데  
 도인의 큰 은혜는 산처럼 무겁네.

월색송성사전유(月色松聲寺轉幽)  
 수침소진담담구(水沈銷盡澹忘求)  
 병부고핍광시락(病夫困乏匡時略)  
 타일심사복일구(他日尋師卜一丘)

**달빛 슬비람에 질 더욱 그윽하고  
 물에 잠겨 다한 마음 담담해  
 욕심 잊었네.  
 병든 몸은 진실로 시대 바를 계획 없으니  
 다음에 스님 찾아 물러나 살 곳  
 구해야지.**

의침 법사가 어떤 스님인지 알 수 없지만, 스님과 선비의 도타운 교분이 달빛처럼 은은한 시라 하겠다. 첫 수에 인용된 ‘오송강 물’은 중국에 있는 강이다. 태호에서 발원하여 동북으로 흘러 소주 가정을 거쳐 상해에서 황포강에 흘러드는 강

인데, 당나라 장유신이란 사람이 <전다수기(煎茶水記)>에서 물의 품질을 논하며 오송강수를 16번째로 꼽았다고 한다. 시인은 영통사 스님이 부채와 시를 선물한 것을 두고 그 정을 오송강 물에 비유했다.

조준이 남긴 두 수의 시는 스님과의 교분이 주는 청량한 기쁨과 인생살이의 고뇌를 사할 계획을 묻고 싶은 중생의 마음이 간절하게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읽을 수록 마음을 당기는 맛이 있다.

소방삼신일(少訪三身日)  
 문전백미심(門前柏未尋)  
 금봉객백발(金逢客白髮)  
 배주십년심(杯酒十年心)

**짧아서 삼신을 방문한 날에는  
 문 앞의 잣나무 찾지 못했다니  
 오늘 서로 만나 백발에 놀라며  
 한 잔 술로 십년의 마음 달랜다오.**

엄상투갈의(嚴霜透葛衣)  
 랑월산청취(涼月散淸輝)  
 응솔악문법(攄琴樂聞法)  
 중정좌부귀(中庭坐不歸)

**매서운 서리는 갈옷을 파고들고  
 서늘한 달은 맑은 빛 뿌리는구려.  
 무릎 안고서 법문 즐겁게 듣느라  
 뜰 가운데 앉아 돌아가지 않는다오.**

남효온(南孝溫 1454~1492)도 영통사 스님들을 자주 찾았다. 문집 <추강집(秋江集)> 제3권에 실린 ‘영통사(靈通寺)에서 밤에 얘기하다가 경(敬) 법주(法主)께 드리다’는 2수의 시가 그의 지극한 마음을 보여준다.

#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권하는 ‘관음태교’-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관음태교로 낳자!

불자라면 모두 불교 고유의 태교법인 관음태교로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야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지재만현 큰스님

**태교(胎敎) -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조선시대 사주당 이씨자 지은 <태교신기>에서는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태교 열달이 낫다.”고 말한다. 태교는 아이의 ‘인성과 지능’을 형성하는 기본설계도 역할을 하는 최초의 교육으로서 아이의 평생 좌우한다. 유대인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인슈타인을 비롯한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2001~2009년)를 차지하고, 미국의 정치·경제·문화

예를 줄름잡고 있는 비경도 태교와 영유아 교육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잉태(孕胎)의 진실 - 영혼체의 존재**  
 잉태는 난자와 정자의 단순한 결합인 수정(受精)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인연있는 태아의 영혼체가 보통 수정의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 되었다더라도 지연유산 됩니다. 영혼체는 육체가 죽어도 소멸하지 않고 사후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태아)의 본체입니다. 인간이 행한 선악의 행위는 모두 이 영혼체에 업(業)으로 저장됩니다. 선행을 하여 선업이 많은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고 죄를 많이 지어 악업이 많은 사람은 고통의 과보를 받는 것이 카르마의 법칙(인과법)이라는 우주의 이법(理法)입니다. 그러므로 태교는 행복과 불행에 결정하는 영혼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태교의 본질은 불행의 원인인 악업을 소멸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관음태교 -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영태교**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첫째는 태아에 좋은 영혼체가 들어야 하고, 둘째는 이미 잉태된 태아 영혼체에 생인 악업의 업장(業障)을 소멸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바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행복 태교법입니다. 지극 정성으로 관음태교를 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좋은 인연의 영혼체를 부모와 맺어주고 잉태 후에는 태아의 업장을 씻어주기 때문에 태아는 건강하고 지혜충명하며 상성이 착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재능개발 위주의 다양한 태교법에 비해서 관음태교는 불교 고유의 전인적(全人的)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의 방비**  
 첫째, 관세음보살님께 3배하고, 귀의 참회하면서 주·수·생·년·이름을 고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명문>을 1독하고 '불정심 관세음보살모드러나'를 5, 15, 32회 독송합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태교발원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잉태 전에는 훌륭한 아이 잉태를, 잉태 후에는 태아의 업장소멸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넷째, '관세음보살'을 일상으로 간절하게 소리 내어 10~30분 정도 부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으며, 잉태 후에는 태담(胎談)태교를 병행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태아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아빠의 사랑을 전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으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의 거듭된 확신을 들려 주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낙태(墮胎) 하지 말아야 하고 5개월을 지켜야**  
 관음태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시음, 음주술 외에도 담배·마약 등을 하지 말라는 재가불자의 5계(戒)를 반드시 지키고, 10선(善)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신 계획을 잘 세워서 낙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와 원결(怨結)을 맺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영혼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불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아이의 행복을 좌우하고 가정의 화목을 가져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인류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관음태교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성인과 중생 유망한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불교 고유의 태교법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훌륭한 선택은 바로 관음태교입니다.

##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현지사 춘천분사 정기법회(252회) •11월 2일 (일), 오전 9시 30분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함양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